

신장내과로의 진료의뢰 시기가 혈액투석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

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이영모 · 이한규 · 권오경 · 장동석 · 이수윤 · 나기량 · 이강욱 · 신영태

목적 :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내과로의 진료의뢰 시기에 따른 임상적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투석 시작 후 1년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방법 :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충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을 받고 처음 혈액투석을 시작한 21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. 신장내과로 전원 후 90일 이후에 혈액투석을 시작한 환자군을 조기의뢰군, 90일 이내에 혈액투석을 시작한 환자군을 지연의뢰군으로 구분하여 임상상을 비교분석 하였다.

결과 : 대상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5.5 ± 15.7 세이며 남녀비는 1.47:1이었고 원인 신질환으로는 당뇨병이 49.3%로 가장 많았다. 지연의뢰군에서 조기의뢰군에 비하여 남자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($p < 0.05$), 의료급여 수혜자가 많았고 ($p < 0.05$), 동반질환의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($p < 0.05$). 또한 지연의뢰군에서 조기의뢰군에서 보다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($p < 0.05$). 신장내과 최초 진료시 혈색소, 혈청알부민 및 혈청칼슘치는 지연의뢰군에서 조기의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($p < 0.001$). 혈중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인치는 지연의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($p < 0.001$). 혈청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철분 및 ferritin치는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혈액투석 시작 시점에서는 혈청 알부민 치가 조기의뢰군에서 지연의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($p < 0.05$). 그러나 혈색소, 혈중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크레아티닌 청소율, 인, 칼슘, 총콜레스테롤, 중성지방치는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혈액투석치료 시작시 중심정맥카테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지연의뢰군에서 85.2%로 조기의뢰군의 41.6%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($p < 0.001$). 또한 첫 혈액투석 치료 시작시 동정맥루를 이용하는 비율이 조기의뢰군이 58.4%로 지연의뢰군의 14.8%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($p < 0.001$). 투석치료 시작 후 1년간 누적사망률은 지연의뢰군 22.7%, 조기의뢰군 6.2%로 지연의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($p < 0.001$).

결론 : 이상에서 연구자들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신장내과로 조기에 진료의뢰가 이루어질 경우 지연의뢰 경우에 비하여 혈액투석치료 준비에 유리하며 투석치료 후 단기간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